

비틀 리 16호

26-12-5

“권양! 당신은 살아있는 한국의 여성입니다”

부친경찰서 성고문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권양의 공문서변조사건의 공판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5개월이 되는 지금 고소 사실의 대부분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고문의 주범인 문귀동은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인 권양은 3년 구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혁명을 위해서는 성도 도구화하는 극렬좌경세력의 행동대원으로 매도당한 채 결심공판을 기다리며 차가운 감방에서 참기 어려운 수모로 몸을 깎고 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오늘의 사법부의 부당하고 파렴치한 처사를 놓고 다시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관습에서의 한 여성의 전생이 걸려있는 엄청난 사건앞에서 23세의 나이 어린 권양이 보여준 의연한 모습은 오늘의 기성세대를 가시방석 위에 앉게 했다. 안경너머 빛나는 그의 이성적인 눈초리, 차분하고도 논리적인 그의 진술, 그의 컴퓨터와 맞먹는 기억력, 거기에서 진실은 진실로서 밝혀져야 한다는 그의 신념 그리고 선을 위한 자기희생 정신의 투철함은 모든이의 가슴을 벅차게 하였다.

공판정에 출퇴정시 우리들은 그의 표정을 엿볼 수 있었다. 그의 헬쓱하고 해맑은 얼굴에는 어떠한 자기 희생에도 굴하지 않고 해야할 일을 해냈다는 해방감과 자기 자신을 이겨냈다는 자신감 그리고 어떠한 공세에도 위축되지 않는다는 당당함이 방청하는 이들의 마음을 휘어 잡았으며 그의 잔잔한 미소는 재판정의 무거운 분위기를 한결 가볍게 하였다.

공판정에는 신문기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이의 눈을 피해 딸의 공판을 지켜보는 권양의 부모님이 앞줄에 좌정하고 있었다. 이들이 권양의 부모임은 그들의 끊임

줄 모르는 오열에서 우리는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제발 우리 딸의 일을 잊어 달라”고 호소한바 있다. 이러한 부모에게 권양은 자기를 두번 죽이는 일은 바로 진실을 묻어두는 일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권양은 그의 최후진술에서 지금 와서 생각해도 자기의 결단은 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 앞에서도, 판사 앞에서도 국민 앞에서도 무죄였고 떳떳했다.

그러한 권양이 어머니의 눈과 마주친 순간 그 당당함과 승리감은 일시에 무너지며 어두워진 눈망울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져 나올듯 했다.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앞으로 계속 찢어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았다.

권양이 왜 이토록 아픈 투쟁을 감행해야만 했는가? 다시는 민주투쟁을 하는 동료들이 같은 일을 반복해서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세상에 진실은 진실로서 밝혀져야 한다는 그의 굳은 의지가 외로운 투쟁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이나라 여성들이 권양이 혼자 싸우게 할 수는 없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나라의 가부장제가 이나라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순결이라는 정조관념에 묶어 놓고 그것을 유린하여 여성의 인권을 말살하는 현상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 일가의 빈곤의 해결도, 무법자의 범죄은폐의 수단으로도, 전쟁시에는 남성의 성욕의 해소책으로 그리고 공권력은 고문의 수단 등으로 남성이 만들어 놓은 여성의 약점을 악용하는 천인공로할 처사에 여성들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권양의 이번 투쟁은 바로 이러한 여성의 인간화운동의 시작으로써도 크게 주목을 받아야 한다.

박영숙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 위원장)